

## 장애인의 날 특집

#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마케터'

### 소셜네트워크서비스마케터란

인터넷, SNS(블로그,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즉,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는(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마케터는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콘텐츠를 수집하고 수집된 콘텐츠를 마케팅 목적 및 내용에 맞게 가공합니다. 작성한 홍보 콘텐츠를 인터넷, SNS 등에 게재합니다.

### 소셜네트워크서비스마케터와 유사한 직업

| 세부 직업명        | 설명  |
|---------------|---|
| 광고 및<br>홍보전문가 | 제품의 광고전략 수립부터 광고 제작, 홍보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사람                               |
| 체험상품<br>기획자   | 농촌체험, 문화재 체험 등 소비자가 희망하는 체험상품을 기획하는 사람                                    |
| SNS마케터        |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를 활용하여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활동을 지원하는 사람                        |
| 검색광고<br>마케터   | 온라인 내 광고가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관심 패턴을 분석하고, 키워드를 선정하여 검색광고에 반영하는 사람 |
| 소비자트렌드<br>분석가 | 소비자의 구매 패턴 변화를 분석하여 소비 트렌드를 예측하는 사람                                       |

### 소셜네트워크서비스마케터의 자격과 진출분야

#### ☑ 자격

소셜네트워크서비스마케터와 관련하여 다수의 등록민간자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http://www.pqi.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진출분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마케터는 방송, 인터넷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활동하며, 제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가전, 보석, 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소셜네트워크서비스마케터 관련 직업 정보



#### 상품기획전문가

소비자의 선호, 소비 유형, 구매 패턴, 상품의 판매량 등을 분석하여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기획하는 전문가입니다.

#### 상품기획전문가 요구특성

##### A-예술형(창조/아이디어), I-탐구형(사고/아이디어)

상품기획전문가는 예술-탐구형(AI형)으로 시장동향을 분석하여 신발·의류·액세서리 등과 같은 상품들을 기획하고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업무 환경에서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한 업무 수행을 선호하며, 사회·문화적 현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며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 장애인 채용 고용주 인터뷰

#### Q1 채용 시 어떠한 점을 가장 고려하시나요?

기본적인 지원 조건은 개인용 컴퓨터가 있고, 그 컴퓨터로 화상회의를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어느 정도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 수행이 가능한 컴퓨터 활용능력은 일반 사용자 수준으로 간단한 문서작성이 가능하고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하며, 글을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 Q2 소셜네트워크서비스마케터가 되기를 희망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조언을 한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찾고 그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 기회가 올 수 있음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마케터가 되기를 희망하신다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해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발전은 향후 소셜네트워크마케팅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능력을 갖춘다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진로정보」)

#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나만의 방법으로 해결해보세요!



한양대학교 대학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창경 교수

- MIT 재료공학 박사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교수
-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
-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등

“수학, 과학은 못하면 과학자나 공학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학, 과학을 잘 해야 인정받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차방정식도 애플리케이션이 1초 만에 답을 내놓는 세상이에요. 정답찾기 문제풀이에 매달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보다는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나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창경 교수는 우리사회가 갖가지 잘못된 상식과 편견에서 하루빨리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과 유전자 편집기술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현실에서 과거의 법, 제도, 관습을 지나치게 고수할 경우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은 결말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보자.

**Q1. 최근에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는 주제로 대중 강연을 하셔서 화제가 됐는데,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생명공학이 새로운 지식기반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2006년 미국의 한 과학지에 ‘DNA는 우리의 시간을 멈출 수 있을까’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노화는 염색체 말단의 텔로미어라는 부분과 연관이 있는데, 텔로미어가 점점 사라지면 세포증식이 안 되어 노화가 진행돼요. 그런데 텔로미어의 길이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0살까지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겠죠? 유전자 편집(CRISPR, 크리스퍼) 기술의 발달로 이것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같은 거대기업은 바로 이 분야에서 생길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인공지능 분야는 이미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선점했지만 이 분야는 그렇지

않아요. 10년 내 ‘슈퍼 인텔리전트 베이비’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생명이 디지털화되고 프린트된다는 것은 인류가 신의 영역에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크고 규제도 많죠.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에서 인간배아의 유전자 편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의 발전은 결코 법으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생명공학의 발달에 따른 윤리문제를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다루고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Q2. 교수님 말씀처럼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 직업세계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지식기반 산업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전통적인 일자리를 줄여줄게 합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외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죠. 플랫폼에 올라탈 수 없는 자영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직장을 10년, 20년 다닌다는 생각은 그다지 현실성이 없어요.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를 계속 찾아다녀야 할 겁니다.

**Q3. 앞으로 직업세계에 뛰어들어야 할 젊은이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선 취업자 마인드에서 벗어나 고용주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고용주라면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내릴까 생각해 보면 대략 가야 할 큰 길이 보이는 거죠. 평생의 취미를 갖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요즘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 보세요? 거기 나오는 출연진이 강태공 수준으로 낚시를 잘 하니까 TV에 다시 나오잖아요. 본업인 연기에서 빛을 잃어도 취미로 다시 살아난 거죠. 나만의 생존기술이랄까요, 그런 걸 갖추고 있으면 불확실한 시대에서도 그나마 유리한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어진 문제를 푸는데 에너지를 쏟지 말고, 문제를 발견하고, 만들어 내는데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가 생겨나니까요. 예를 들자면 요즘 핫한 이슈인 비트코인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탄생했지요. 리먼 사태 때 전 세계 금융시장이 휘청거렸는데, 금융시장에서 몇몇 나쁜 사람들이 장난을 쳐서 생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려고 했던 것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입니다.

남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찾아내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틀에 박히지 않은, 현장의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죠. 창의력은 결국 경험과의 연결에서 나오니까요.

(출처 : 자유학기제 웹진 「꿈트리」)